

8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로 진행된 당시 상황 • 부모와 희생자 자녀의 마지막 연락 	04.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 등 진상규명 활동 과정 • 피해자들의 노력과 활동 모습
학습목표	02. 진도의 혼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직후의 진도, 안산의 상황과 피해자의 이야기 •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과정 	05.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의 특별법 촉구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세월호 참사의 피해 현황
학습내용	03. 유가족의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상황과 가족들의 심정 • 자녀 수습 과정의 슬픔 	06.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과 유가족의 삶

8주차 |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8주차 | 학습목표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학습목차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피해자 가족이 모임을 만들고 대응한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직후의 진도, 안산의 상황과 피해자의 이야기 ■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과정



참사 직후의 진도, 안산의 상황과 피해자의 이야기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섬 주민들의 생존자 보호

- 세월호 생존자 보호
 - 172명 생존자 대다수는 팽목항으로 이송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중증도에 따라 목포의 병원과 진도체육관으로 분산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섬 주민들의 생존자 보호

- 민간 어선의 생존자 구출
 - 서거차도 지역주민 생존자 90명 구출
 - 생존자 중 성인은 복지회관으로,
여학생들은 조도면 서거차도 출장소 직원의 집,
남학생들은 면 출장소 인근 주민 집으로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



섬 주민들의 생존자 보호

- 섬주민들의 생존 학생 보호
 - 생존 학생들에 대한 옷 및 식사지원
 - 가족들에게 생존관련 소식 전달
 - 무분별한 취재에 대해 학생 보호
(기자 제지, 얼굴 보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섬 주민들의 생존자 보호

-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의 보도의 문제
 - 참사직후 '전원구조'란 오보 송출
 - 무리한 취재경쟁으로 피해자 보호 미흡
 - 참사 실상에 대한 명확한 보도 미흡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섬 주민들의 생존자 보호

■ 참사직후 생존 학생 인터뷰 내용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물에 잠긴 거 보고 왔는데, 막 기자들이 정신없이 저희를 찍고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저희는 다 젖고 막 꼴도 말이 아닌데. 애네들이 대체 언제 와서 저러고 있는지, 막 친구들끼리 얼굴 가리려고 뭉쳐 있었는데, 마을 주민 아주머니가 담요 들고 오시더니 저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출처0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안산에서 진도로

“차가 왔는데, 그때도 되게 우왕좌왕 했어. 막 교문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타려는 사람들, 막 버스는 모자라고 막...”

“처음에 알고 있었던 전원구조에서 이제 학교에서 확인했듯이 더 이상의 명단이 안 올라 오는 걸 보고 그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내려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세희 옷가지랑, 신발이랑 챙겨서 내려갔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내리자마자 명단 확인을 했던 거죠. 생존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몇 번을 확인하고 해도 없는 거예요.”

[출처02] 『그날을 말한다 - 재강 엄마 양육자』 [출처03] 『그날을 말한다 - 세희 아빠 임종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섬 주민들의 생존자 보호

■ 세월호 참사 후 재난보도준칙 수정

- 피해자 동의 없는 방송 송출 및 취재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안산에서 진도로

“울기도 하고 가면서 인터넷도 보는데 인터넷을 저희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빠하고 그냥 둘이 손 꼭 잡고서는 가고, 기사님한테 티비 좀 틀어달라니까 티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러 안 보여주신 거 같더라고요.

학교 관계자였는지 시의 공무원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같이들 내려가셨거든요.”

[출처04] 『그날을 말한다 - 승묵 엄마 은인숙』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안산에서 진도로

“우린 전원구조에서 중간 갔을 때 오보라고 뒤집혀 졌잖아요. 처음에는 애들 배 타고 몇 명이 온다고 하길래 ‘그 속에 있겠지’ 생각을 했었어요, 190 몇 명이 오고 있다는 그 다른데 섬에 있다가 온다 하길래 ‘그쪽에 있겠지 통화를 나랑 전화기가 없어서 나랑 통화를 못하겠지’ 그 마음에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의 다 갔을 때 없다 하고 또 차웅이가 올라온 거야. 제일 1번으로 차웅이가 올라왔잖아요. 차웅이가 올라오는데, “아이고 저 엄마는 어떻게 하니” 그렇게 말하고 내려갔었어요.

[출처05]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육자』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안산에서 진도로

내 아이도 그렇게 됐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저 엄마는 어떻게 하니. 그래도 내 아이는 어디서 섬에서 오겠지’ 하고 가다가, 어떻게 이제 상황이 막 뒤집어지고, 진도체육관에 가서 생존자 명단을 딱 봤는데 재강이가 없는 거예요.”

[출처05]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육자』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과정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팽목항과 체육관

“안으로 체육관으로 들어갔더니 등성등성 몇 명 앉아있고 부모들도 있고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앞으로까지 무작정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 애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잘 몰라요, 개가 누군지. “너 몇 반이니?” 그랬더니 앞에서 몇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뒤에 또 애가 있는 거예요. “너 몇 반이니?” 이랬더니 10반이래. “너 경주봤니?” 물었죠. 이제 이렇게 된 거. 애도 정신이 없죠. 담요 뒤집어쓰고 있고 엄마가 이렇게 막 안고. 엄마가 아이를 땡기는 거예요. “몰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길 하는. 밖에 나와가지고 애들 아빠랑 그냥 앉아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출처06]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행화』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팽목항과 체육관

“진도 체육관에 도착을 했는데 벌써 자기들은 무슨 저기가 있는지 체육관 안에 들어갔는데 은박지를 다 깔아 놔더라고요.
그 위에 학생이 있었는데 나는 체육관에 아이들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승목이를 찾으니까 아무 소리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사람들은 다 있고 벌써 책상을 깔아놓고 업무를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출처07] 『그날을 말하다 - 승목 엄마 은인숙』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팽목항과 체육관

“새벽부터지, 그 다음 날인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팽목에. 거의 한 2,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못 먹었던 거 같아요. 계속 차에서. 체육관에 간 건,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팽목에 있다가 상황을 어느 정도 보고, 진도 체육관으로 가서 이제 현황판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아마 다시 체육관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차에서 잤었어요, 우린 계속. 한 이틀 정도는 차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진도 체육관으로 갔던 거 같아요.
우리가 체육관에 갔을 때 이미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린 맨 앞에 앉았었어요.”

[출처09] 『그날을 말하다 - 도연 아빠 김기백』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팽목항과 체육관

“팽목항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 천막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파출소장인거 같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 있었고, 뭐 말 그대로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물어보고 해도 구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면, 하고 있다 얘기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길 해 달라, 알아보겠다라고만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만 반복이 됐죠.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마스크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제대로 그 전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이런 영상들만 나왔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잖아.”

[출처08]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중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가족 사찰과 반별 모임 결성

“17일이면 한 사람이라도 숨 가쁘게 올라온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숨이 붙어 있는 아이들이 올라오면은 119 구조대가 대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통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119 구급차가 저쪽에서 ‘웁 웁’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냐면 방송 차량들이 그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검안소까지 2, 300미터 되는 거리를.
그걸 보고 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출처10]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가족 사찰과 반별 모임 결성

“박근혜 연설하는 데 바로 앞에 앉았죠. 동영상 있는데. 그때 한창 이 사람, 저 사람 가족들 요구 조건을 들어줬어요. 손들고 얘기하도록. 내가 이제 손을 딱 드는데 뒤에서 딱 뺑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파란 조끼 입은 애가.

“나, 이씨. 여기서 소란 피울까. 방송 다 찍고 있는데”

소란 피우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들고 일어나서 내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박근혜한테 한 게 아니고. 김석균 ”

[출처11]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가족 사찰과 반별 모임 결성

“부모님 누가 앞에 나오셔서 “저희들 외부인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헛갈린다. 저희가 생판 모르지만 반별끼리 모임시다” 그렇게 해서 반별로 모이기 시작을 했구요.”

“학생들 명단이 있으니. 각 명찰 두 개씩이었나?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반 써가지고 뒤에 그리고 아이 사진도 넣었나? 기억이 잘 안나요. 그것도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하다가 “반대표를 뽑자”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출처12]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가족 사찰과 반별 모임 결성

“해경, 뭐 해수부, UDT 모든 걸 총괄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구조가 될 거니까. 그 애길 하는데 뒤에서 또 뺑기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앉으라고 뺑기는 거야.

“놔 이 새끼야” 그래서 욕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박근혜한테 욕했다고 퍼져나간 거죠.”

[출처11]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가족 사찰과 반별 모임 결성

“급히 명찰 목에 거는 걸 만들고 아침 8시 되기 전에 마이크 잡고

“지금부터 부르시는 분들, 호명하시는 분들 반 대표한테 오셔서 이거 받아가십시오.

이 명찰은 학생들, 유가족한테만 줍니다. 엄마, 아빠한테만” 급히 만들었으니까

그때 다 나눠주고 “이거 가진 사람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나니까.”

[출처13]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2차시 진도의 혼란 상황



마무리

-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의 모습과 가족들

SOURCES



- [출처01]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공판기록, 제07권, 증인신문조서 (2014.7.28.)
- [출처02] 대법원, 2015도6809,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2016.1.18)
- [출처03]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한울, 2019, 74~75쪽
- [출처04]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승묵 엄마 은인숙』, 한울, 2019, 82쪽
- [출처05]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2019, 53쪽
- [출처06]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한울, 2019, 97~98쪽
- [출처07]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승묵 엄마 은인숙』, 한울, 85쪽
- [출처08]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한울, 86~87쪽
- [출처09]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도연 아빠 김기백』, 한울, 53~55쪽
- [출처10]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한울, 107~108쪽
- [출처11]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한울, 109쪽
- [출처12]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109~110쪽
- [출처13]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한울, 82~83쪽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